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루게 제23283호] 주제 99 (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 <)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대위(=)의 전문을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다》를 영구선군정치연구회가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21일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내무군영성지대에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내무군영성지대에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22일에 우와 같은 소식을 게재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21일 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군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기술개진원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리고는 기술개진원 생산공정들과 갖가지 제품들을 보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창성군에서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에 다같이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로동당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중시를 받들어주시고 하시면서, 군들에서 창성의 모범을 따라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자 간곡히 호소하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친 후 창성군에 출소조공원을 편만하시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금출 7번대최초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875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설 공동사설과업을 틀어쥐고 올해전투결속을 잘하자

공동사설을 받들고 년초부터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온 올해의 투쟁은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분매있게 벌림으로써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이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고있는데 신심을 가지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욱 높이 부르며 광명찬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서 유례없는 위대한 승리를 해냈다. 우리 당은 《당장전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공동사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를 발표하여 올해의 투쟁목표와 과업을 뚜렷이 제시하고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올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군사적전진은 더욱 튼튼해지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비약해나가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랑을 안고 올해전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분매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진두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락관을 넘쳐 충동력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대표사회와 당장전 65돐을 계기로 우리 인민의 긍지

와 자부심은 천배로 높아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념원이 빛나게 성취되었다. 우리 인민처럼 세기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사명을 맞이한 올해의 경사장에 새기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올해전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야 한다. 올해에도 정초부터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군에 애국의 발걸음을 맞추어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기로 결속같이 내달려야 한다.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정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미진한 과업관철에 령령을 총집중하여 올해에 내세운 목표를 어김없이 실현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단위에서 맡겨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총동원정세를 벌려야 한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는 투쟁을 다음해전투의 준비사업을 잘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해나가야 한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데서 결정적인 해인 다음해전투의 시작부터 총공격을 분매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준비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당면생산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면서 모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예제 지은 농작물이 하나도 허실되지 않도록 올해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간지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기초공업부문들에서는 올해전투에서 커다란 생산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다음해에 더 큰 비약을 안아올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투쟁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는 대단히 높다. 일군들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과학적관리에 기초하여 올해전투를 실속있게, 면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내러가 생산자대중과 함께 일하면서 참신하고 박력있는 화신적정신사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어야 한다. 대중을 앞장서서 이끌어내야 한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결정적담당이다. 각종 당조직들은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잘 결속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비상한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령령을 총동원하여 일대 선전공세를 벌림으로써 온 나라가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양양된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결속같이 내달려야 우리 인민앞에는 끝없이 밝은 전망이 펼쳐져야 한다. 모두다 승리의 심심드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동원정세를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결속하면 무조건 해내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자.

# 당대표자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고조진군에 더 큰 박차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창성군 근로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 평양돼지공장 능력확장, 개건공사 마감단계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평양돼지공장에서는 먹이생산과 먹이주기, 비육과 고기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러져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부럽지 않은 유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코나르 현을 기울이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올해 초 평양돼지공장건설정형을 몸소 알아보시고 강력한 건설력량도 보내주시고 자체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그리고 많은 우량품종의 종사돼지까지 보내주시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사지휘부에서는 평양돼지공장을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로 꾸러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대규모적인 고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데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령령을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생산건물개건과 부속건물건설, 도로포장과 원림조성, 상하수도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현장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정황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고무된 건설자들은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며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었다. 혁신은 수십개의 생산자동건설을 맡은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속에서 일어났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비육호동들의 지붕철수와 외우기, 미장, 바닥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생산호동공사를 계획대로 밀고나가자면 많은 목재가 필요하였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지도국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기



경공업혁명의 불길높이 편지물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이민이원직공장에서 - 분사가자 김 광 혁 찍음



# 선군의 길에 우리 조국의 대번영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ど높이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를 맞이한 찬란한 인민의 혁명적열정은 융양처럼 끓어오르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승리적인 사면들이 다채 단으로 일어나고있다.

세기를 주름잡는 혁명적대고조의 장엄한 발자취소리와 더불어 조국땅위에 펼쳐진 대비약, 대번영의 시대는 우리 당의 선군 정치가 안아온 기적적인 현실이다. 뜻깊은 전환의 언덕에서 준엄하던 고난의 나날들을 돌이켜보고 원대한 리상과 포부로 가슴부리는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심장으로 새기는것은 오직 선군의 길에서만 우리 영원한 승리와 미래를 담보된다는 드림없는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신념, 이 진리를 절대의 좌우명으로 새기고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용감무쌍하게 전진해나갈것이며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승진과도 더불어는 력사의 그 날을 반드시 앞당겨올것이다.

실현하기 위하여 일찌기 선군을 혁명방식으로 내세우고 군위 서울경주 제105땅크사단에 선군병도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집일성조신으로 누리며 떨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웅대한 리상과 목표의 바탕에는 바로 선군의 신념이 역적같이 뿌려내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나라와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담보하는 무진막강한 군사정치적힘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세력의 공격하고도 견고한 투쟁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있으며 끝없이 통성변영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던 강성대국의 승리는 달리 필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을 담보하는 무적의 총대를 마련한 백승의 정치방식이다.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던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화를 변화시키던 환경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방공업을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이다. 어떤 제국주의강도도 물리치고 경제적인관대해치려는 우리의 무적의 군력은 군사중시, 군사선행을 드림없는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되게 되었다.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환경에서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으며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찬란한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우리 혁명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이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 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드림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지난 50성상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이 강하고 전투력이 비길대없이 강한 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시였으며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었다. 수령철사승위정진, 총독판정신으로 만판창조고 주체적인 선군건설사상과 전범으로 무장한 군대, 자기 최고사령관과 하나의 동지의 세계를 이루고 상하일치, 판별일치, 군정배합을 실현한 군대, 사상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세에서 전체 인민의 거울이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 혁명과 건설을 앞장서고 밀고나가는 강위력한 주력군,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병도미에 자라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긍지높은 면모이다. 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에서 파시되바와 같이 우리 인민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그 어떤 전략무기도 단숨에 격파분쇄하고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는 적의 아성도 짓밟아버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을 무적의 군력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으며 우리의 국방공업은 인민경제전반을 비약시키는 발동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반세기의 장구한 기간 정력적인 선군혁명병도의 길을 이어오시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군사적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 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선군정치미의 발자취들이 최후승리의 명과를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모습과 더불어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선군정치는 병도자의 결심을 결사실천해나가는 일선의 대부대를 마련한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강국건설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병도자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단결력, 정신력이다. 병도자의 두리에 은 나라의 전체 군인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칠 때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기적도 창조될수 있다.

선군정치는 찬란한 인민의 정치사상적단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게 하였다. 혁명정도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대오를 정제화하며 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일신시킴이것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병도자의 결심을 결사실천해나가는 일선의 대부대가 마련되며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에 의하여 당의 강성대국건설수상이 빛나게 실현되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찬란한 인민이 펼쳐나 위대한 병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나가는 일선단결의 강군으로 준엄해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길것을 바라시던 새로운 공병들을 내놓으며 10년을 2-3년으로 주름잡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이고 장군님께서 바다를 막을것을 결심하시던 평안하는 과도

와 싸우며 만년방조제를 쌓고 무연한 옥토를 펼쳐놓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찬란한 인민이 위대한 병도자와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전진의 보폭을 맞추는 이러한 군인대단결,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선군병도, 사랑과 믿음의 정기가 낳은 빛나는 결의이다. 전진길과 곁길, 농장길을 쉬임없이 걸으며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찬란한 인민이 동지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결속되게 한 밑뿌리로 되었다. 50성상 선군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며 장영과 전사,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백백천배로 다져진 일심단결의 위력, 자기 병도자와의 구상과 결심을 신장으로 받들고 결사 실현해나가는 찬란한 인민의 무한한 정신력에 의하여 앞으로 우리 조국땅에서는 세상이 뒤늦드는 기적적인 사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게 될것이다.

선군정치는 인민의 리상을 실현할수 있는 국가정체력의 본보기를 마련한 정치방식이다.

강국을 건설하는데서 근본문제는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 강국을 일떠세우는가 하는것이다. 국적이 강함뿐 아니라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참다운 강국이다.

선군정치는 인민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병도사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한 빛나는 승리의 력사인 동시에 인민들의 모든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정체력의 본보기들을 일떠세우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던 준엄한 나날에 벌써 승리의 오늘을 내다보시며 부흥과 번영의 세실을 하나하나 품으시고 가꾸어오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줄 국가정체력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년제부를 마련해나가는 국가정체력의 본보기들을 일떠세우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던 준엄한 나날에 벌써 승리의 오늘을 내다보시며 부흥과 번영의 세실을 하나하나 품으시고 가꾸어오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줄 국가정체력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년제부를 마련해나가는 국가정체력의 본보기들을 일떠세우신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년대기이다.

이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혜와 힘과 열정을 바치는것만큼 승리가 마련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있다. 부강번영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라는 노력으로 안아와야 한다.

선군의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 빛나는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며 이 땅위에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보검이다. 반세기경결전의 최후승리로,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될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위창찬란한 미래도 선군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병도를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수령신념대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력사적인 당 대표자회와 10월의 금주광장에서 폭발된 승리의 환호성을 강성대국승리의 촉포성으로 더욱 크게 울려가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찬란한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선군조선의 대비약, 대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서 우리의 군력을 한층배로 다지게 위한 대고조전군에서 세상을 들쭉하게 하는 기적적인 사면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리상과 포부를 높이 세우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쟁하여야 한다.

리상과 포부의 높이이자 창조와 변혁의 높이이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선군주의 투쟁은 언제나 위훈과 영광으로 빛나는 편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역경속에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오를을 내다보시고 CNC화를 비롯한 우리 조국의 번영의 씨앗들을 심고 가꾸어오신 그 숭고한 세계를 심장마다에 새기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땅에 발을 붙이고 온 세상을 내다보며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용감하게 도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을 그쳐 따라갈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최첨단을 그쳐는 높은 포부를 가지고 두뇌전, 의지전, 기술전을 벌여야 한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급속도로 다그쳐야 한다. 열렬한 애국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은 우리 인민의 값없는 삶의 터전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의 요람이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벼간 경동의 시대에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조국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락언으로 꾸러가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누가 보잘것없고, 알아주지않던 나날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떠맡는 강성대국의 뿌리이다. 우리는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 포진들이 우리 조국의 귀중한 한부분이여 애국의 심장을 베퍼야 할 위훈의 황무대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초소, 자기 단위, 자기 고장을 책임으로 빛내이기 위해 사명과 열정을 강리리 바쳐나가야 한다.

당,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전리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의 위대한 전선도이며 당의 결의이자 조신의 결의이고 그것은 곧 실천이다. 우리는 당의 부름이러한 찬란히 펼쳐나 불가 능도 가능도 전변시키는 불굴의 정신력, 결사관철의 투쟁력을 높이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 경쟁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때 대한 당의 전투적초소를 받들고 대고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게 치게 일찌기 우리 당이 정한 시한표에 강성대국건설의 승진고를 높이 올리기 위해 최대의 진격속도로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병도에 의하여 마련된 정치군사적위력과 경제적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위창찬란하다. 우리는 힘이 있고 강기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며 찬란한 미래는 조선의 결기와 기개는 이 땅위에 세계를 잠금시키는 대사면들을 끊임없이 안아올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의 신념드높이 선군대고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의 행마루에 하루 빨리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정 신 철

## 1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필승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병도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스런 현실을 펼쳐나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열쳐나가고있습다.》

장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은 력사발전의 각인한 단계에서 여러가지로 론되어왔다. 지난 시기에는 지리적인 토끼가 나라들의 영향력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는 견해도 있었고 《대국이란 최대의 공업토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정도가 세계적인 공업생산력의 발전을 따라갈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업의 생산성, 과학과 기술은 점차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되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이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왔다.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이 기계산업시대로부터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한 오늘날에는 경제구조도 그자체보다 훨씬 복잡해져나가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되어가고있다. 물론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지만 이른바 공업토대와 기술력을 이같이 하고 자원이자 자금도 필요하며 자기 실정에 맞는 경제전략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과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여 그 어느 나라나 강국으로 되고 대국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참다운 대국이란 무엇보다 정치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나라이다. 자주권이 없고서야 자주권도 없다. 남에게 존경을 짓밟히고 자주권을 유린당하면서 그 무슨 경제기술적발전과 《물질적적력》에 대하여 혼란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것은 권력과 단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날 강력한 정치군사력이 없는 민족의 생존권조차 지켜낼수 없으며 외세의 내정간섭책과 침략에 의하여 사회가 사분오열되고 국가 자체가 파괴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필승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병도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스런 현실을 펼쳐나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열쳐나가고있습다.》

장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은 력사발전의 각인한 단계에서 여러가지로 론되어왔다. 지난 시기에는 지리적인 토끼가 나라들의 영향력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는 견해도 있었고 《대국이란 최대의 공업토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정도가 세계적인 공업생산력의 발전을 따라갈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업의 생산성, 과학과 기술은 점차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되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이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왔다.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이 기계산업시대로부터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한 오늘날에는 경제구조도 그자체보다 훨씬 복잡해져나가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되어가고있다. 물론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지만 이른바 공업토대와 기술력을 이같이 하고 자원이자 자금도 필요하며 자기 실정에 맞는 경제전략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과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여 그 어느 나라나 강국으로 되고 대국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참다운 대국이란 무엇보다 정치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나라이다. 자주권이 없고서야 자주권도 없다. 남에게 존경을 짓밟히고 자주권을 유린당하면서 그 무슨 경제기술적발전과 《물질적적력》에 대하여 혼란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것은 권력과 단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날 강력한 정치군사력이 없는 민족의 생존권조차 지켜낼수 없으며 외세의 내정간섭책과 침략에 의하여 사회가 사분오열되고 국가 자체가 파괴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강대국과 변형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면 군사정치적전제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강력한 군사적담보와 정치적력량이 마련되면 경제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국의 힘으로 강성대국을 능히 일떠세울수 있다. 군사정치적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데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군사정치적힘을 마련한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60여년간 미제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국가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이런 특수한 조건에서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었던은 군사와 정치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확고히 선행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병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병도의 첫 자욱을 새기실 때에 간직하신 숭고한 리상과 목표는 강성대국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바지하여야 빛을 보는 법이다. 번영과 부흥은 누가 선사해주지 않으며 경제강국은 오직 자력으로써만 건설할수 있다.

선군은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자기 힘, 자기 식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비약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병도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며 자립경제의 물질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결속시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주객관적정세,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게 하는 구상을 펼쳐시었다. 천리마의 고향 강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걸음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은 나라에 대한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다.

그 어디에 가나 대고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인민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달리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시었다. 경제강국건설이 비록 어렵고 방대한 과제이지만 정치사상강군, 군사강국을 일떠세우는것에 비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의 지원과 기술, 우리의 힘과 잠재력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선군은 우리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백방으로 다지게 하는 기지로 되고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나날의 진관적국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리상적인 경제구조이다.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부문구조를 갖춘 이러한 경제구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천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강성대국건설의 든든한 토양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 식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여기에 경제강국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근본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의 독특한 경제구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선군의 기치밑에 경제강국의 면모에 맞는 강력한 국가정체력으로 장식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쳐시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쟁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며 중공업이자 국방공업이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 중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쟁과 농업부문에 더욱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주체화, 주체성, 주체비율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전장이 열렸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의 원로에 기초한 현대적인 생산기계가 수없이 일떠세워진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튼튼한 기지로 다져지고있기에 우리의 국가정체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은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선군은 대비약속도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정밀하게 하는 추진력을 마련해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증진의 제일국력이며 원자핵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될 때 대비약속도가 창조되며 경제강국건설이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근면정신이 은 사회에 울려들게 하여 찬란한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선군의 기치 밑에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혁명적근면정신을 따라배워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장물들을 연이어 일떠세우고있다.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과 맞먹는 대동공과 수종합농장 능력화공과에서도 세인승경관시하는 기적을 일떠세우고 있다.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근년간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바지하여야 빛을 보는 법이다. 번영과 부흥은 누가 선사해주지 않으며 경제강국은 오직 자력으로써만 건설할수 있다.

선군은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자기 힘, 자기 식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비약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병도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며 자립경제의 물질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결속시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주객관적정세,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게 하는 구상을 펼쳐시었다. 천리마의 고향 강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걸음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은 나라에 대한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다.

그 어디에 가나 대고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인민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달리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시었다. 경제강국건설이 비록 어렵고 방대한 과제이지만 정치사상강군, 군사강국을 일떠세우는것에 비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의 지원과 기술, 우리의 힘과 잠재력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선군은 우리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백방으로 다지게 하는 기지로 되고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나날의 진관적국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리상적인 경제구조이다.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부문구조를 갖춘 이러한 경제구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천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강성대국건설의 든든한 토양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 식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여기에 경제강국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근본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의 독특한 경제구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선군의 기치밑에 경제강국의 면모에 맞는 강력한 국가정체력으로 장식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쳐시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쟁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며 중공업이자 국방공업이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 중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쟁과 농업부문에 더욱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주체화, 주체성, 주체비율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전장이 열렸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의 원로에 기초한 현대적인 생산기계가 수없이 일떠세워진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튼튼한 기지로 다져지고있기에 우리의 국가정체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은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선군은 대비약속도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정밀하게 하는 추진력을 마련해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증진의 제일국력이며 원자핵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될 때 대비약속도가 창조되며 경제강국건설이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근면정신이 은 사회에 울려들게 하여 찬란한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선군의 기치 밑에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혁명적근면정신을 따라배워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장물들을 연이어 일떠세우고있다.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과 맞먹는 대동공과 수종합농장 능력화공과에서도 세인승경관시하는 기적을 일떠세우고 있다.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근년간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이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혜와 힘과 열정을 바치는것만큼 승리가 마련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있다. 부강번영은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라는 노력으로 안아와야 한다.

선군의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 빛나는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의 상징이며 이 땅위에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보검이다. 반세기경결전의 최후승리로, 온 세계가 부러워하게 될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위창찬란한 미래도 선군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병도를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수령신념대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 있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력사적인 당 대표자회와 10월의 금주광장에서 폭발된 승리의 환호성을 강성대국승리의 촉포성으로 더욱 크게 울려가기 위하여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찬란한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선군조선의 대비약, 대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서 우리의 군력을 한층배로 다지게 위한 대고조전군에서 세상을 들쭉하게 하는 기적적인 사면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리상과 포부를 높이 세우고 미래를 내다보며 투쟁하여야 한다.

리상과 포부의 높이이자 창조와 변혁의 높이이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선군주의 투쟁은 언제나 위훈과 영광으로 빛나는 편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역경속에서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오를을 내다보시고 CNC화를 비롯한 우리 조국의 번영의 씨앗들을 심고 가꾸어오신 그 숭고한 세계를 심장마다에 새기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조국땅에 발을 붙이고 온 세상을 내다보며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용감하게 도전하여야 한다. 우리는 발전된 나라들을 그쳐 따라갈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최첨단을 그쳐는 높은 포부를 가지고 두뇌전, 의지전, 기술전을 벌여야 한다.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급속도로 다그쳐야 한다. 열렬한 애국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강성대국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조국은 우리 인민의 값없는 삶의 터전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의 요람이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벼간 경동의 시대에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조국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락언으로 꾸러가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누가 보잘것없고, 알아주지않던 나날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떠맡는 강성대국의 뿌리이다. 우리는 자기들이 지켜선 초소와 일터, 포진들이 우리 조국의 귀중한 한부분이여 애국의 심장을 베퍼야 할 위훈의 황무대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기 초소, 자기 단위, 자기 고장을 책임으로 빛내이기 위해 사명과 열정을 강리리 바쳐나가야 한다.

당,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전리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조국의 강성번영의 위대한 전선도이며 당의 결의이자 조신의 결의이고 그것은 곧 실천이다. 우리는 당의 부름이러한 찬란히 펼쳐나 불가 능도 가능도 전변시키는 불굴의 정신력, 결사관철의 투쟁력을 높이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한다. 경쟁과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때 대한 당의 전투적초소를 받들고 대고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게 치게 일찌기 우리 당이 정한 시한표에 강성대국건설의 승진고를 높이 올리기 위해 최대의 진격속도로 내달려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병도에 의하여 마련된 정치군사적위력과 경제적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위창찬란하다. 우리는 힘이 있고 강기때문에 언제나 승리하며 찬란한 미래는 조선의 결기와 기개는 이 땅위에 세계를 잠금시키는 대사면들을 끊임없이 안아올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승리의 신념드높이 선군대고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의 행마루에 하루 빨리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정 신 철

## 3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강대국과 변형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면 군사정치적전제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강력한 군사적담보와 정치적력량이 마련되면 경제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국의 힘으로 강성대국을 능히 일떠세울수 있다. 군사정치적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데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군사정치적힘을 마련한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60여년간 미제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국가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이런 특수한 조건에서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었던은 군사와 정치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확고히 선행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병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병도의 첫 자욱을 새기실 때에 간직하신 숭고한 리상과 목표는 강성대국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한 필승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선군병도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이 땅위에 강성대국건설의 자랑스런 현실을 펼쳐나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열쳐나가고있습다.》

장대한 나라에 대한 열정은 력사발전의 각인한 단계에서 여러가지로 론되어왔다. 지난 시기에는 지리적인 토끼가 나라들의 영향력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는 견해도 있었고 《대국이란 최대의 공업토대를 가지고있는 나라》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정도가 세계적인 공업생산력의 발전을 따라갈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공업의 생산성, 과학과 기술은 점차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되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이 주되는 힘을 집중하여왔다.

인류의 사회경제발전이 기계산업시대로부터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한 오늘날에는 경제구조도 그자체보다 훨씬 복잡해져나가는 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되어가고있다. 물론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지만 이른바 공업토대와 기술력을 이같이 하고 자원이자 자금도 필요하며 자기 실정에 맞는 경제전략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과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여 그 어느 나라나 강국으로 되고 대국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참다운 대국이란 무엇보다 정치적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나라이다. 자주권이 없고서야 자주권도 없다. 남에게 존경을 짓밟히고 자주권을 유린당하면서 그 무슨 경제기술적발전과 《물질적적력》에 대하여 혼란할 수 있겠는가.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며 그것은 권력과 단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날 강력한 정치군사력이 없는 민족의 생존권조차 지켜낼수 없으며 외세의 내정간섭책과 침략에 의하여 사회가 사분오열되고 국가 자체가 파괴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이 보여주는 진리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환경,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강대국과 변형하는 나라를 건설하자면 군사정치적전제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강력한 군사적담보와 정치적력량이 마련되면 경제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국의 힘으로 강성대국을 능히 일떠세울수 있다. 군사정치적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데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군사정치적힘을 마련한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60여년간 미제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국가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이런 특수한 조건에서 우리가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할수 있었던은 군사와 정치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확고히 선행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병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병도의 첫 자욱을 새기실 때에 간직하신 숭고한 리상과 목표는 강성대국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바지하여야 빛을 보는 법이다. 번영과 부흥은 누가 선사해주지 않으며 경제강국은 오직 자력으로써만 건설할수 있다.

선군은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자기 힘, 자기 식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비약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병도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며 자립경제의 물질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결속시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주객관적정세,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게 하는 구상을 펼쳐시었다. 천리마의 고향 강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걸음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은 나라에 대한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다.

그 어디에 가나 대고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인민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달리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시었다. 경제강국건설이 비록 어렵고 방대한 과제이지만 정치사상강군, 군사강국을 일떠세우는것에 비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의 지원과 기술, 우리의 힘과 잠재력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선군은 우리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백방으로 다지게 하는 기지로 되고있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나날의 진관적국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리상적인 경제구조이다.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고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부문구조를 갖춘 이러한 경제구조가 있었기에 우리는 천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강성대국건설의 든든한 토양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 식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여기에 경제강국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 근본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의 독특한 경제구조, 자립적인 경제토대는 선군의 기치밑에 경제강국의 면모에 맞는 강력한 국가정체력으로 장식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의 새 역사를 펼쳐시면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쟁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때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며 중공업이자 국방공업이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 중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쟁과 농업부문에 더욱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주체화, 주체성, 주체비율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전장이 열렸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의 원로에 기초한 현대적인 생산기계가 수없이 일떠세워진것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로 확고히 전환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식의 우월한 경제구조가 경제강국의 튼튼한 기지로 다져지고있기에 우리의 국가정체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은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선군은 대비약속도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정밀하게 하는 추진력을 마련해주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힘은 인민대중의 정신력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증진의 제일국력이며 원자핵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이 최대한으로 분출될 때 대비약속도가 창조되며 경제강국건설이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적근면정신이 은 사회에 울려들게 하여 찬란한 인민의 사상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선군의 기치 밑에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혁명적근면정신을 따라배워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장물들을 연이어 일떠세우고있다.

선군정치방식으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대자연개조사업과 맞먹는 대동공과 수종합농장 능력화공과에서도 세인승경관시하는 기적을 일떠세우고 있다.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근년간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바지하여야 빛을 보는 법이다. 번영과 부흥은 누가 선사해주지 않으며 경제강국은 오직 자력으로써만 건설할수 있다.

선군은 최첨단기술에 기초하여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여 자기 힘, 자기 식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비약의 기지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병도에 의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고 찬란한 인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키며 자립경제의 물질적잠재력을 총동원하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당은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의 근본전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결속시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과 주객관적정세, 세계경제발전추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찬란한 인민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게 하는 구상을 펼쳐시었다. 천리마의 고향 강산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데 이어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을 걸음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은 나라에 대한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다그쳐지게 되었다.

그 어디에 가나 대고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인민경제전반이 상승의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달리는 오늘의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과학적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시었다. 경제강국건설이 비록 어렵고 방대한 과제이지만







# 선군의 빛발은 영원히 따사롭다

##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2부를 보고

최근 조선 4.25 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위대한 선군정상의 품속에서 어엿한 녀성혁명으로 성장하는 선군가족들의 행복한 생활을 화폭에 담은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에 이어 제2부를 만들어 내놓았다.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2부 (영화문학 김일성상관인 박호일, 김정화, 연을 우유팡)는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참가자를 갖춘 군단으로 떠난 해삼골대의 선군가족들이 경연준비를 끝내기 위해 애쓰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펼쳐보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러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도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을 조직진행하기를 정말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을 위해 대대를 떠나 군단에 도착한 해삼골대 선군가족에술소조원들의 낮익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

경연참가를 포기하고 해삼골을 떠났던 손종근수 평미경이 대대로 돌아와 선군가족들과 함께 《단지금》을 착상하고 가사 《사랑의 로리법》을 썼던 대대정치지도원의 인연이 한결같은 훌륭한 국자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새롭게 올리게 된다. 왕덕실, 고시내를 비롯해 평범한 녀인들이 군 헌달사이에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고 예술기량을 한계만 높여 마침내 그들모두는 최종심사에서 당선되어 어버이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떠나가게 된다.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과 더불어 새롭게 성장한 미디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능한 작가나 전문예술인도 아닌 군관관해들이 시대의 새 문화의 창조자,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로 성장할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다.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과 더불어 새롭게 성장한 미디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유능한 작가나 전문예술인도 아닌 군관관해들이 시대의 새 문화의 창조자,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로 성장할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다.

흰겨워도 어려워도 오직 한마음, 한모습으로 경연준비에 깨끗한 진정을 바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악기를 하나 다루어도 혁명적선군정신을 체현한 진척배기군인가족들답게 살아 투쟁하는 해삼

골대인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어떤 숭고한 인생의 념원이 간직되어있는 것인가.

성격도 경력도 취미도 서로 각이한 녀성들이 경연무대에 하나의 모습으로 오르는 과정은 단순한 예술창조과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쳐 어버이장군님께 드릴 큰 기쁨을 마련하는 충정의 하루하루, 오직 그것을 위한 생활과 투쟁으로만 충만된 참다운 인간들이 태어나는 뜻깊은 성장의 나날이었다.

적들의 무분별한 전경도발책동으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자 예술소조경연에 참가한 선군가족들은 절호를 차지한 남편들과 군인들결혼 자기의 전두파지를 정하게 해줄것을 청원한다.

선군가족들이 무대를 떠나 화선으로 달려나가고 군단에서 경연을 미루게 된 사연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연을 절대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군인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전호를 차지한 우리 인민군정사들에게 전배배의 힘과 용기를 주고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철수가 될것이라고 하시며 예술소조원들이 빠짐없이 경연무대에 다시 서도록 하여 주시었다.

군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연에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경연무대에 다시 오를 선군가족에술소조원들속에는 적들의 전두에서 치명상을 입은 남편을 뒤에 두고 떠나온 주인공 박보검도 있었다.

낮에는 기량향연에 온갖 정열을 다 기울이고 밤은 또 밤대로 자기를 간호해주는 고마운 아내였지만 대대장 진범은 보검을 아프게 질책한다.

《정세가 준엄한 오늘도 자신께서 전호를 지키시면서도 우리 딸과 누리를 돌보는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데 당신 지금 어디에 와있소? 기쁨을 드리자고 나선 사람이 교자생각한다는게 이 남편인가. ... 우리 마음속엔 언제나 장군님만 꼭

차 있어야 하오.》

이 절절한 당부들 심장에 새겼기에 보검은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가족소대원들을 이끌어 사랑의 경연무대에 누구보다 멋있게 나설수 있었단 것이다.

경연의 나날에 범미경은 또 얼마나 놀라보게 성장했는가.

최종판정을 하루 앞둔 중요한 시각에 미경은 해삼남자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진것으로 하여 심한 진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미경은 그거에서 무슨 일을 하든 꽃으로 피어 가이 향기를 풍기고 보답의 열매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진척배기 충정의 인간, 참다운 결사관철의 투사가 아니겠는가.

바로 우리의 선군가족들은 결사관철의 이러한 투쟁기쁨을 지니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고있다.

선군가족들의 헌신과 호응은 판공의 향기를 이룬 몸소모든 공헌을 준다.

우리는 과연 선군가족들처럼 결사관철이라는 말을 단순한 구호로가 아니라 한생의 전부, 삶과 투쟁의 근본으로 간직하고 살아 투쟁하고 있는가?

그대 선군시대에 사는 인간이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한생을 장군님께 바쳐주시라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큰 기쁨을 마련하자.

이렇듯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2부는 선군시대 인간

이 좌우명으로 안고 살아야 할 혁명적인생관의 근본을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고있으며 결사관철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고있다. 평범한 군관관해들의 진실하고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충정의 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적특질을 깊이 있게 밝혀낸 여기에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2부가 가지는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와 사상정서적강화력이 있다.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2부는 선군가족들의 참된 삶이 꽃피어나는 위대한 선군시대에 대하여서도 참으로 깊은 의미를 새겨주고 있다.

총장은 병사들만이 아니라 선군가족들의 생활까지도 책임지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선군혁명의 품, 한없이 따사로운 어버이사랑으로 충만된 우리 시대는 과연 무엇으로 하여 아름다운가.

조국수호의 한철호에 남편들과 함께 서있는 우리의 선군가족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다.

영화는 해빛이 그들을 해삼골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꽃을 피워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하여 여기에 완전히 해답을 주고 있다.

최정연에 위치한 해삼골대를 찾으시어 선군가족들의 수고가 깃든 경도식공나무를

배까지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산에 지는 해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아직 낮은 인내 버려 해가 지는구만, 그래서 해삼골이라고 나직이 외우시었다. 그리고 이번에 수고 많은 선군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는 경연에 당선되면 꼭 공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거들거들 외우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삼골대의 미경이 가장 관장까지 보장하고 경연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 그 동무도 경연당선자로 해야 한다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경연》이라고 지었다는데 뜻깊은 것 아니겠는가 하시면서 경연이 에게 일할 옷까지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선군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 혼연일체의 눈물겨운 화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선군정치가 정말 지어지는 위대한 선군정치가야말로 병사들과 군인가족들 사이의 애정 어린 어버이사랑이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참다운 인간

의 정치, 사랑의 정치라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으로 전호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주고 총대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선군가족들의 삶이 그리도 행복함있으며 우리의 선군시대가 그토록 위대한것이 아니겠는가.

해삼골대의 선군가족들이 사랑의 경연무대에서 첫 노래를 부른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노래부르는 세대도 바뀌고있다.

하지만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이 선군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대를 이어 계속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선군가족에술소조원들의 공원을 보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까지 읽어주시며 또다시 선군시대의 선군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축복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은성속에 태어난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진행되는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지게 될 축복받은 선군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백두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치르는 선군가족들의 감사의 노래, 총장님 보답의 노래는 따사로운 선군대양의 빛발과 더불어 길길이 울려 퍼질 것이다.

리수정



당과 수행,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보람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계속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세대 청년들속에서뿐만 아니라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도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수호의 한철호에 남편들과 함께 서있는 우리의 선군가족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다.

영화는 해빛이 그들을 해삼골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꽃을 피워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하여 여기에 완전히 해답을 주고 있다.

최정연에 위치한 해삼골대를 찾으시어 선군가족들의 수고가 깃든 경도식공나무를

배까지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산에 지는 해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아직 낮은 인내 버려 해가 지는구만, 그래서 해삼골이라고 나직이 외우시었다. 그리고 이번에 수고 많은 선군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는 경연에 당선되면 꼭 공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거들거들 외우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삼골대의 미경이 가장 관장까지 보장하고 경연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 그 동무도 경연당선자로 해야 한다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경연》이라고 지었다는데 뜻깊은 것 아니겠는가 하시면서 경연이 에게 일할 옷까지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선군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 혼연일체의 눈물겨운 화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선군정치가 정말 지어지는 위대한 선군정치가야말로 병사들과 군인가족들 사이의 애정 어린 어버이사랑이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참다운 인간

의 정치, 사랑의 정치라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으로 전호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주고 총대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선군가족들의 삶이 그리도 행복함있으며 우리의 선군시대가 그토록 위대한것이 아니겠는가.

해삼골대의 선군가족들이 사랑의 경연무대에서 첫 노래를 부른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노래부르는 세대도 바뀌고있다.

하지만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이 선군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대를 이어 계속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선군가족에술소조원들의 공원을 보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까지 읽어주시며 또다시 선군시대의 선군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축복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은성속에 태어난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진행되는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지게 될 축복받은 선군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백두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치르는 선군가족들의 감사의 노래, 총장님 보답의 노래는 따사로운 선군대양의 빛발과 더불어 길길이 울려 퍼질 것이다.

리수정

당과 수행,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과 보람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이 계속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세대 청년들속에서뿐만 아니라 새 세대 청년들속에서도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수호의 한철호에 남편들과 함께 서있는 우리의 선군가족들이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다.

영화는 해빛이 그들을 해삼골에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꽃을 피워 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통하여 여기에 완전히 해답을 주고 있다.

최정연에 위치한 해삼골대를 찾으시어 선군가족들의 수고가 깃든 경도식공나무를

배까지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산에 지는 해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아직 낮은 인내 버려 해가 지는구만, 그래서 해삼골이라고 나직이 외우시었다. 그리고 이번에 수고 많은 선군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는 경연에 당선되면 꼭 공원을 보여주시겠다고 거들거들 외우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해삼골대의 미경이 가장 관장까지 보장하고 경연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 그 동무도 경연당선자로 해야 한다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경연》이라고 지었다는데 뜻깊은 것 아니겠는가 하시면서 경연이 에게 일할 옷까지 선물로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선군가족들 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혈연의 정, 혼연일체의 눈물겨운 화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선군정치가 정말 지어지는 위대한 선군정치가야말로 병사들과 군인가족들 사이의 애정 어린 어버이사랑이 가장 숭고한 경지에 이른 참다운 인간

의 정치, 사랑의 정치라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따사로운 사랑의 햇빛으로 전호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워주고 총대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선군가족들의 삶이 그리도 행복함있으며 우리의 선군시대가 그토록 위대한것이 아니겠는가.

해삼골대의 선군가족들이 사랑의 경연무대에서 첫 노래를 부른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노래부르는 세대도 바뀌고있다.

하지만 선군혁명의 제2나팔수들이 선군가족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대를 이어 계속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뜻깊은 올해에도 선군가족에술소조원들의 공원을 보아주시고 영광의 기념사까지 읽어주시며 또다시 선군시대의 선군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축복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은성속에 태어난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진행되는 선군가족에술소조경연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지게 될 축복받은 선군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 괴뢰패당은 격동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적의지와 기개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은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에 우리 군대가 응답한 징벌을 가한데 대해 무리없이 결코 들면서 일대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미쳐 날뛰고있다.

리명박패당은 매일과 같이 비사회의요 뉘오 하며 부닥소동을 피우면서 《땃배로 웅성하라.》느니, 《북의 미화일기지도 타격하라.》느니하고 전쟁열을 고취하는가 하면 괴뢰군부패귀를 높은 《교전수칙》을 수정한다. 《대응조치》를 취한다 야단법석하면서 미행강공모합 《조치위성문》호를 끌어들이며 미국과 함께 조선시해에서 최대규모의 연합훈련을 벌여려 하고있다.

괴뢰패당은 기다렸다는듯이 사건이 터지자 즉시 북남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간신히 이어온 적십자선과 민간선의 인연평항과 협착사범자환전까지 차단하는 광기를 부리고있다.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소동으로 하여온 남조선땅이 살벌한 동족대결판판으로 뒹이던지고 북남관계는 전쟁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달리고있다.

이런 사태로 말하면 전적으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과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이 벗어난 중중한 후과이다.

원래 우리는 남조선에서 리명박패당이 《정권》에 들어앉아 반공화국대결을 《대북정책》으로 신포하고 《선제타격》 나발을 불어대며 미국에 매달려

북침전쟁책동에 미쳐들아갈 때부터 그 위협성을 직감하고 광란적소동을 중지할것을 여러차례 경고하였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뿐아니라 우리의 대화와 협상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과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는것으로 대담해나갔다.

괴뢰패당은 올해에 들어와 조선시해와 동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더욱 빈번히 강화하였을뿐아니라 그 장소도 점점 우리측 가까이로 접근시켜 나중에는 우리측 명해에 대고 대포를 쏘아대면서 불장난을 벌이는데 이르렀다.

이 세상에 과연 그 누가 자기 집 마당에서 총포탄을 미친듯이 퍼부어대며 도발의 불공치를 휘두르는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겠는가.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우리의 자위적인 정벌조치에 대해 그 무슨 《도발》이니, 《총격》이라고 《분노》니 뉘나 하고 떠들면서 반공화국대결분주장을 피우는것은 실로 언어도단아 아닐수 없다.

일로 저들이 저질러놓고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것은 도발자, 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이런 괴뢰패당의 군사적도발은 저들의 도발대결소동이 총과산에 직면하고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날로 높아가는것을 막으며 북남관계개선을 파란시키고 심각한 대내외적고립과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의 산물이다.

괴뢰패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공화국도발대결소동의 무리조도 약육해육한 함성침몰사건의 무리조책동이 만천하에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고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외에서 더욱 높아져 극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였다.

이런 도발은 우리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불범무법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무언의 인정》을 받아 기정사실화되고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엔 그것을 도발로 절이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써먹자는 흥계에 따른것이다.

현실은 괴뢰들의 군사적도발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타산된 또 하나의 특대형도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이런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도발에 리용된 연동도, 그것도 우리의 형해에 직접되고 불질을 한 괴뢰군도발에 정확히 명중타격하여 응당한 징벌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역까지 나서서 우리를 격고며 《땃배로 웅성하라.》느니 뉘나 하며 기쁨을 토하는것은 서벌의 도발했다가 불벼락을 얻어맞은 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오늘의 사태는 리명박소패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남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 우리의 경고와 내외의 우려가 공명한것이 아

니었다는것을 눈앞의 현실로 명명백백하게 실증해준다.

리명박패당과는 대화로 협상이요 하는것자체가 천진만만하고 대결의식이 화석같이 굳어진 그들에게는 리성도 도리도 그 무엇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가 지난 2년 수개월에 걸쳐 얻은 뼈저린 교훈이고 결론이다.

괴뢰패당이 정 대결을 강요하면 우리들도 굳이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리들은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는것이 우리의 기결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패당의 도발에 치치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감히 또다시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보다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줄것을 약속을 송두리째 날려보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괴뢰패당은 극도로 격동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적의지와 기개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대결이 격화되면 전쟁이 터지고 불을 지피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제비안 뜰에 벌한다는 말이 있다. 말로 경고하면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선의에는 선으로 대할것이지만 우리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가차없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본때를 보여줄것이다.

주제99 (2010)년 11월 26일 평 양

## 독자의 청지

누구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평성우편국 두부채신분소 우편통신원 최정실동무는 30대의 한창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어찌 청춘시절에 위훈이 약속되는 들끓는 대고조전투에서 일하고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첫 우편통신원일을 달린지 그날이나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나 변함없이 매일 당보를 비롯한 출판물과 우편물들을 책임지고 배포하는 데서 더없는 보람과 긍지를 찾았습시다.

이런 그를 두고 사람들은 우리 우편통신원이라고 격을 담아 부르고있습니다. 겨울이 밝아 되고와 몸을 녹이려고, 평성시 두부2동 박승광

로씨야에 갔던 국토환경 보호성 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에서 진행된 범보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 하였던 김장흥국토환경보호성 대표단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

성대표단이 26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장흥 국토환경 보호성 부장과 함께 귀국한 주조 로씨야어방 무역면담대사가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서

### 서 심 향 선 수

### 녀자자유형레슬링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의 서 심향선수가 25일 제 16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자유형 레슬링 48kg경기에서 영예의 제 1위를 쟁취하였다.

당이 안겨준 탄력과 패짱으로 선경기에서부터 맞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누른 그는 준결승 경기에서 일본선수와 대전하였다.

그는 폭발적인 힘과 불의적인 다리잡기기술을 발휘하

여 편승 점수를 올림으로써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타승하였다.

선심도들이 결승경기에 출전한 그는 특이한 앉은 자세에서의 뒤돌아잡기와 몸통굴리기 등 다양한 기술수법들을 활용하여 웰남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여 받았다.

관중들은 경기마당에서 높은 기쁨과 고상한 흥분을 보여준 서 심향선수의 우승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농촌기회화초병이라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인다운 림장에서 농사일을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가는 그들을 두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미더운 부자뜨락또르운전수라고 부르고있다.

로동통신원 림 창 성

## 성실한 부자뜨락또르운전수

안락군 신촌협동농장에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부자뜨락또르운전수가 있다. 그들이 바로 라경선동무와 그의 아들 라운철동무이다.

라경선동무는 지난 30여년 동안 트락또르운전수로 성실하

게 일해오고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운전대를 잡은 아들 라운철동무도 농촌기회화초병의 영예를 안고 같은 일에서 앞장서고있다. 이들은 공구들을 그르히 갖추어놓고 트락또르를 잘 관리하며 언제나 만가

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농촌기회화초병이라는 자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인다운 림장에서 농사일을 알뜰하고 간지게 해나가는 그들을 두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미더운 부자뜨락또르운전수라고 부르고있다.

로동통신원 림 창 성









